

목 차

📁	빅데이터 동향	33
정책	- 법무부, 빅데이터를 이용한 '외국인 데이터 지도' 개설	33
	- 해경청, 빅데이터플랫폼으로 행정 혁신...AI 학습도 가능	34
	- 국가 의료 빅데이터 분석실 개소..."초급사용자도 쉽게 분석"	35
	- 농진청, AI·빅데이터 적용 플랫폼 '아라온실' 개발	36
	- 서울시, 데이터중심 병원-바이오기업 공동연구 지원	38
	- SH공사, AI·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한다	39
기업	- 올해 K-의료기기 트렌드는 'AI·빅데이터'...키메스2024 개막	40
	- 카드·통신·유통까지...빅데이터 한 데 모아 '상품화' 나선 나이스그룹	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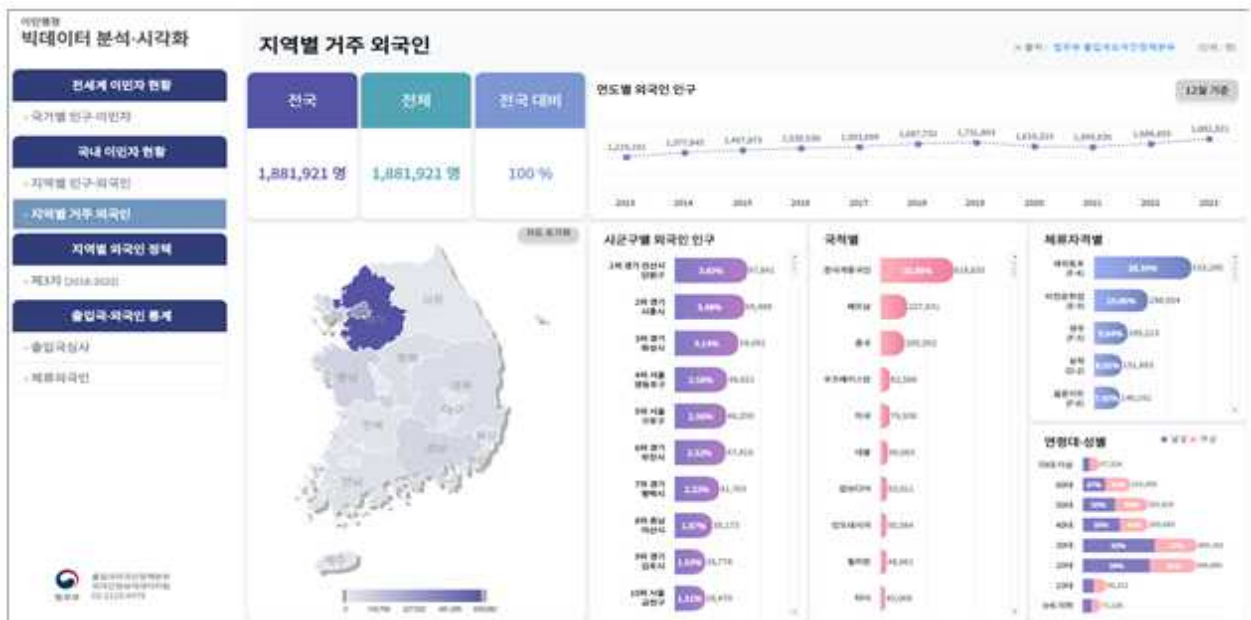


빅데이터 동향

법무부, 빅데이터를 이용한 '외국인 데이터 지도' 개설

- 법무부, 전국 곳곳의 외국인 거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형 '데이터 지도' 개설
 - 법무부는 출입국·이민정책 데이터를 지도나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'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·시각화'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

〈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·시각화 서비스 (출처: 법무부)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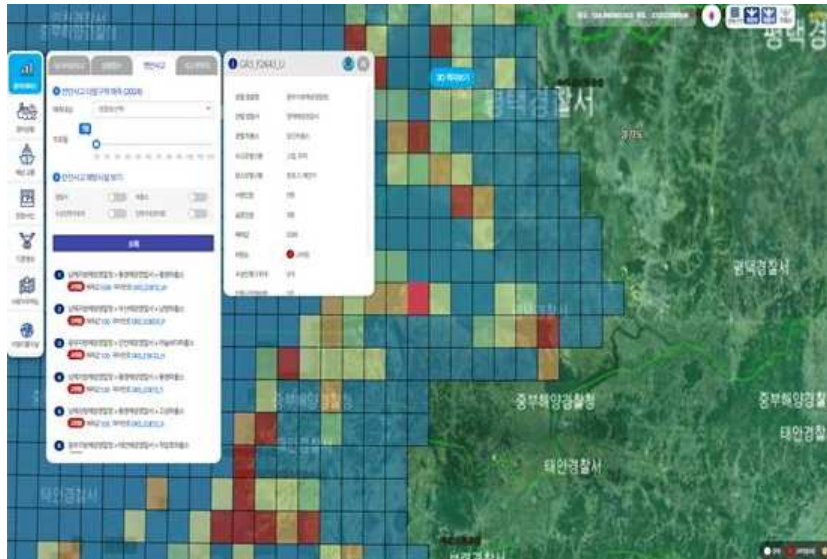
-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에 접속하면 국내 지역별 인구·외국인 현황, 출입국·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월보와 함께 유엔이 발표하는 전세계 인구·이민자 현황 등 정보도 확인 가능
- 또한, 연도·국가·지역·연령대·성별 등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나 시기에 따른 변화, 관련 정책 현황 등도 파악 가능
- 박성재 법무부 장관, "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려는 목적"이라며
 - "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힘

출처 : 한국일보, 외국인 어디 많이 사는지 한눈에 본다... 법무부, '데이터 지도' 개설 (2024.3.11.)

해경청, 빅데이터플랫폼으로 행정 혁신…AI 학습도 가능

- 해양경찰청, 3월 5일 행정 혁신을 위해 '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 체계화 계획'을 발표
 - 해양경찰청은 이날 본청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열고 2020년부터 구축한 '해양경찰 빅데이터플랫폼'을 선보임
 - 해양 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한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(AI)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3천 100여종을 보유

〈빅데이터플랫폼의 연안사고 위험도 예측 (출처: 해양경찰청)〉



- 해양경찰청은 플랫폼을 더 체계화해 연안 사고 위험 예측, 선박별 교통량 분석, 암초 등 위험 지형지물 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
 - 또한, 올해 본청에 전담팀(TF)을 꾸려 빅데이터와 AI를 해양 치안에 접목할 디지털플랫폼 체계화에도 나설 계획
- 김종욱 해양경찰청장, "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첨단 기술을 해양 치안 활동에 활용하겠다"며
 - "이를 토대로 각종 해양 사건과 사고에 더 유연히 대처할 것"이라고 언급

출처 : 연합뉴스, 해경청, 빅데이터플랫폼으로 행정 혁신…AI 학습도 가능 (2024.3.5.)

국가 의료 빅데이터 분석실 개소... "초급사용자도 쉽게 분석"

-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, 3월 11일 보건의료연구자원센터에 빅데이터 분석실을 열고 개소식을 진행
 - 2016년 설립된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정보 제공 동의자 17만 명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 중
 -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상·역학 데이터 54만 건과 유전체 데이터 63만 건 가량이 활용됨
 - 센터에 새로 마련된 빅데이터 분석실은 이러한 대규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의

〈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빅데이터 분석실〉



- 기존 정보분석실 6석에서 오픈분석실 8석,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하는 개인분석실 4석, 고성능 소프트웨어와 통계청 자료 연계까지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 8석 등 20석으로 확장
 - 분석실에는 초급 사용자들도 쉽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'OPEN KoGES (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)' 플랫폼이 설치
 - KoGES는 한국인의 만성질환 분석을 위해 임상·역학·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으로, 플랫폼 이용자는 21만 명분의 KoGES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·분석·시각화할 수 있음
- 질병청, "고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임상·유전체 분석 파이프라인 등이 포함된 고성능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속도가 크게 향상했다"고 설명

출처 : 연합뉴스, 국가 의료 빅데이터 분석실 개소... "초급사용자도 쉽게 분석" (2024.3.11.)

농진청, AI·빅데이터 적용 플랫폼 '아라온실' 개발

- 농촌진흥청(이하 농진청),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재배,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종합관리 플랫폼 '아라온실(Ara Greenhouse)' 개발

〈차세대 온실 종합 관리 시스템 아라온실 (출처: 농촌진흥청)〉



- 현재 국내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아 통합 관리, 유지보수가 어려워 새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
- 스마트팜 관련 단체표준이나 국가표준을 제·개정하고 있지만,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져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(AI)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중심 온실 종합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
- 농진청은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,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제작
- 빅데이터, AI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실행 프로그램과 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
 - 농진청 관계자, “개별 장비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기존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일괄 설치가 가능하다”고 설명
 - 아라온실을 이용하면 장비들의 호환이 자동으로 가능해져 농가의 비용 부담이 40%가량 절감 (1만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1,243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)

- 추가적으로, 농가 생산성은 37.6%, 소득은 46.3% 증가, 노동력은 11.1% 절감될 것으로 예상
-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,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

■ 농진청은 호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공개

-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,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 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

■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, “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%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,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”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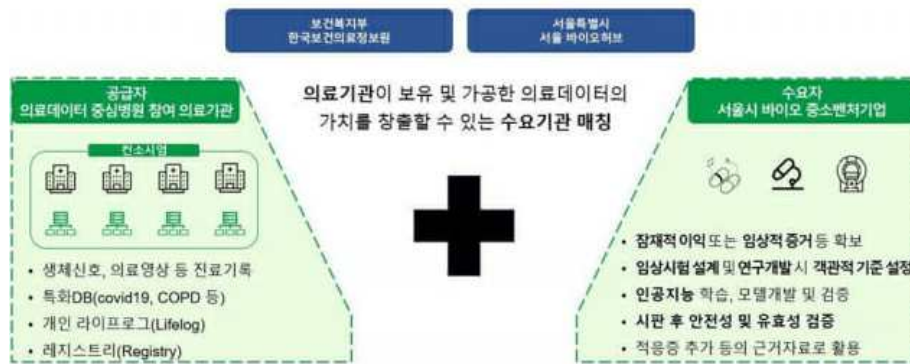
- “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데일리안, 스마트팜 관리 쉬워진다...농진청, AI·빅데이터 적용 플랫폼 '아라온실' 개발 (2024.3.13.)

서울시, 데이터중심 병원-바이오기업 공동연구 지원

- 서울시,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유망 바이오 기업을 연결해 공동연구를 지원
 - 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-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바이오·의료기업을 모집 중

(의료데이터중심병원-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모식도 (출처: 보건복지부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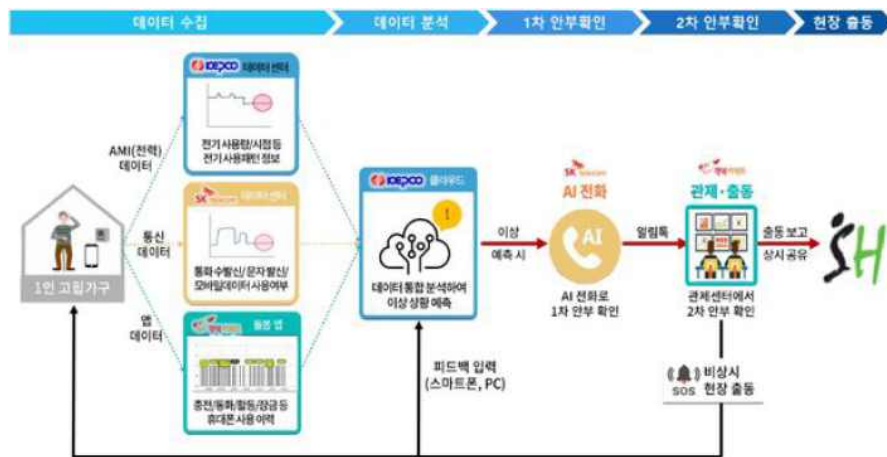
- 인공지능·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, 의료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기관별로 특성 및 유형이 다양한 상황
 - 이로 인해 바이오 기업 연구자들은 의료데이터를 수집·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
- 이번 협력을 통해 시는 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한 중복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할 예정
 - 기업들은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탐색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
 -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바이오·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며, 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병원의 데이터 매칭 과정을 통해 7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
 -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의료데이터 가공,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, 서울바이오허브 시설·연구장비 활용 지원,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 예정
-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, "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력은 연구개발이 다각화·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"라며
 - "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·의료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고 밝힘

출처 : 더팩트, '서울시, 데이터중심 병원-바이오기업 공동연구 지원 (2024.3.11.)

SH공사, AI·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한다

-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SH공사), 주거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‘AI 안부 든든서비스’(이하 든든서비스)를 시범 추진
 - 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,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MOU를 맺고, 영구임대주택 100가구,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 예정

〈AI 안부 든든서비스 사업 구조 (출처: SH공사)〉



- 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, 전력사용량,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상황을 판별하고 AI 자동 안부전화나 긴급출동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
 - 든든서비스는 통화 수·발신 내역,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 등 통신데이터와 지능형 전력량계(AMI)를 통한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, 이 방식은 가정 내 별도의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 대상자의 거부감이 적은 편
 - 일정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, 예측한 전력 사용량을 미달하는 등 이상상황이 감지되면 AI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,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직접 사람이 전화하며 비상시에는 현장출동을 시행
- SH공사,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담당하고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체계도 조성할 계획
 - 서울시복지재단, 사업 모니터링과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며 현장 출동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
- 김현동 SH공사 사장, “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, 신속히 대응한다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

출처 : 조선비즈, SH공사, AI·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한다 (2024.3.4.)

올해 K-의료기기 트렌드는 'AI·빅데이터'...키메스2024 개막

- 3월 14일 개막한 국제의료기기·병원설비전시회 '키메스 2024(KIMES 2024)'에서는 의료인공지능(AI)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혁신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거 참석
 - 올해 제39회째를 맞는 키메스 2024는 더 나은 삶, 더 나은 미래'를 주제로 3월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음
- 올해는 AI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, 특히 국내 최초의 AI 기반 실시간 내시경 영상분석 시스템을 보유한 웨이센이 큰 관심을 받음
 - 웨이센의 '웨이메드 엔도'는 AI 내시경으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며, 병변 감지 기능을 넘어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함
 - 현재 웨이메드 엔도는 강릉아산병원, 일산병원, 중앙보훈병원, 강릉의료원 등 국내·외 다수 병원에 공급되었으며, 지난해부터는 아랍에미리트소재 병원 내 제품을 설치·운영 중
- 인바디는 체성분 빅데이터 솔루션, 셀프케어 솔루션,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InBody(인바디)의 새로운 라인업을 대거 공개
 - 가장 관심을 모았던 'LB트레이너'는 인바디 체성분데이터관리 플랫폼으로, 인바디 클라우드에 쌓인 전 세계 1억 이상 체성분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별로 목적에 맞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구현한 솔루션
 - 해당 제품은 AI 체성분 변화 예측, 자세 측정 평가, 음식 탐지 및 양 추정 등의 기능으로 PT 시장에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
- 이 밖에도 의료정보 관련 업체인 비트 컴퓨터, 유비케어, 이지스헬스케어, 세나클소프트를 비롯해 한신메디칼, 휴온스메디텍, 대성마리프, 등 국내외 의료산업 대표기업들도 참가

출처 : 뉴스웨이. 올해 K-의료기기 트렌드는 'AI·빅데이터'...키메스2024 개막 (2024.3.14.)

카드·통신·유통까지...빅데이터 한 데 모아 '상품화' 나선 나이스그룹

- 나이스그룹 내 빅데이터 전문 계열사 나이스지니데이터가 '데이터 얼라이언스(DATAi)' 위원사들과 함께 이종 산업간 '결합 데이터 상품'을 선보일 예정
 - 카드·통신·유통·신용 등 여러 산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데 모아 상품화해 이용 편의를 높인 상품
 - DATAi는 산업간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해 2022년 1월 출범한 민간 주도 데이터 융합 얼라이언스이며 나이스평가정보(신용), LG유플러스(통신), 롯데카드(카드), NH농협은행(금융), CGV(영화)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 중

<DATAi 모식도 (출처: 나이스지니데이터)>



- DATAi가 선보인 데이터 상품 '외식소비 결합', '보험정보 결합', '스마트시티 연계', '마이데이터 연계', '리서치 연계' 등 총 5종
 -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데이터 추출과 결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데이터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
 - 이 중 '보험정보 결합'은 인보험·실손·청구 등 보험정보와 신용 정보, 카드 정보를 결합하였고,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보험상품 추천이나 고객 캠페인에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
- 나이스지니데이터 관계자, "상대적으로 데이터 결합 활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고객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

출처 : 매일경제, '카드·통신·유통까지...빅데이터 한 데 모아 '상품화' 나선 나이스그룹 (2024.3.15.)